

제 98 호

연중 제 28 주일

(강림후19)

1974. 10. 13.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강 료】

## 친구여, 그대는 산 이편에서 태어났다.



### 정 승 현 신부

로사리오 성월(聖月)이 되면 육군 일등병으로 휴전선에서 근무하던 때가 가끔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완전무장을 하고 이복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월이라고는 하지만 전방 고지의 밤은 무척 추워서 밤새도록 철책선 앞 호안에 서서 보초를 서고 야침에 보면, 철모와 총에도, 심지어는 입고 있는 야전잠바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서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비라도 내리는 경우에는 고생이 몇 배로 심해지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삼천만의 불침번"이라는 자랑으로 가슴이 뿌듯한 때도 있어 "진짜 애국자는 나"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 몸이 배어드는 추위 속에서는 휴전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빠스칼의 다음말(똥세 단장 291)이 생각났습니다.

-그대는 어제서 나를 죽이려는가?  
-그대는 산 이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산 이편에 서서 총부리를 대고 지키고 있을 때, 산 저편에서는 나와 똑같은 젊은 친구가 산 이편의 나를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빠스칼의 말대로 나는 산 이편에서 태어났고 그는 산 저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그가 산 이편에서 태어났거나 내가 산 저편에서 태어났다면 그와 나는 적이 아니며 그가 나를 쏘아 죽이는 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산 이편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산 저편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쏘아 죽이면 살인이나 아니면 애국자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 무서운 어리석음 앞에 저는 모든 보람이나 자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것인지도 모롭니다만, 누가 무어라 해도 전쟁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지입니다.

인류가 전쟁의 어리석음을 알고 무기를 버릴날이 올 것인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 될 때 저는 하느님께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쟁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철책선에서 야간 보초를 서면서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기도드리던 로사리오를 글립니다. 파머마에 나타나셔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시던 성모님의 말씀을 아직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주소서.

###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여 감당할 자 누구우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나이다.

####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열왕기후서 5: 14-17 성서 경향잡지 p.72)  
나아만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야훼께 찬양드렸다

□**찬게송** ◎ 주께서 구원하심 백성들 앞에 드러내 보

이셨도다.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 손이, 거룩하신 그 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 □**제 2독서**(디모테오후서 2: 8-13 성서 p.486)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뜻 이로다.

#### □**복음**(루카 17: 11-19 성서 p.177)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아무도 돌아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 □**신자들의 기도**

1. 두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곳에 나 그들과 함께 있노라 말씀하신 주여! 화해의 성년대회에 모인 당신 종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게 은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원죄의 흠이 없으신 성모여! 당신께서는 특히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을 아나이다. 구하오니 당신이 사랑을 감사 할 줄 알며 당신의 뜻에 맞게 위정자들에게 밝은 지혜 주시기를 애원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

3. 모든이가 구령되고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신자 모두가 전교사가 되어 적어도 한사람 이상 당신의 진리를 받아 드리는 데 참여 하도록 성신주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의 기구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주.....◎. 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삼식**

□**영성체송** 가말진 이 없이 굶주리게 되었어도 주님을 찾는 이는 아쉬운 복 없도다.

### \* 숲 정 이 산책 \*



기도 합시다.  
기도 합시다.

# 한국 천주교회 전국 성년 대회

일시 : 74. 10. 9(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가톨릭신학대학  
주최 : 한국주교단

## 성년(聖年)

### 1. 성년의 목적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번 성년을 「화해의 성년」으로 명명(命名)하고, 교회의 내적쇄신(刷新)을 위해 「기도와 묵상과 성당 순례를 하면서 개인 및 공동체의 개혁을 위한 거대한 회개 행위」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성년의 목적은 「크리스찬들이 하느님과 더욱 밀접해지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2. 성년의 유래

구약성서 레위기에서, 「수양뿔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성년이 선포되면 노예를 해방하고 나그네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며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교회 성년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7백년 전인 서기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처음으로 선포·실시, 특사로서 죄수와 포로들을 석방케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에는 1백년마다 한번씩 성년이 선포되었으나 그 뒤 차츰 기간이 단축되어 서기 1470년 이래 25년마다 성년이 선포되고 있다.

지난 성년 선포가 서기 1950년에 있었으므로, 내년인 서기 1975년은 자동적으로 성년이 된다. 1975년 성년은 예년처럼 로마에서부터 성년이 시작되지 않고, 전세계 지역교회에서 1973년 6월 10일부터 성년행사를 먼저 시작하여 1975년에 로마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3. 화해와 쇄신의 실천 원리

화해와 쇄신의 실천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거한다.

(1) 화해의 경우—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라는 교회 내적 의미를 넘어서서, 기독교와 타종교들 사이의 존중 및 화해, 심지어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들과의 겸허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2) 쇄신의 경우—현대 물질문명 사회의 정신적 타락에 임하여 종교적 영신생활의 강화가 요청되는 점, 더 나아가 「사회정의」 「공동선」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사회에 참여, 국가 공동체의 진실된 개혁을 돕는 일까지가 내포된다.

## 전국 성년 대회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이 주최한 전국 성년대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서울 대신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전국 14개교구에서 올라온 국내의 성직자 5백여 명과 2만여명의 교우가 참가한 성년대회는 전국 주교단의 공동집전 미사로 시작되었다. (전주교구에서는 약 1천여명 참가)

김제덕 주교님은 특별 강론을 통해서, “진정한 쇄신과 화해없이는 인류에게 자유, 정의, 평화가 이룩될 수 없다”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성년 선포 특별교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새로운 자세를 당부하셨다.

위장자들에게는 1. 진정한 민주헌정의 실시, 2. 지역 순주교, 목사, 변호사, 학생들의 석방, 3. 국가의 초긴장상태 즉각 완화, 4. 반공정책을 급급히 발본색원책으로 수정해주시기를 당부하셨다.

또한 교회내의 자급 지도자들에게는 그간 이 나라의 번영과 사회정의를 위해 얼마나 힘써왔으며, 동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해왔는지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모두 각자의 자세를 새로 인식하여 우리의 사회를 바로잡고 쇄신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하셨다.

끝으로, 서로 일치하여 이 나라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백성이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자고 당부하시며, 이 미사와 성년 동안 뜨거운 기도를 계속할 것을 호소하셨다.

미사가 끝나며 성년 특별은사가 교황대사 강복으로 선포되었고, 이어 성체거동과 성체강복으로 성년대회는 막을 내렸다.

이어 십자가를 선두로 태극기, 주교님 다섯분, 5천여명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은 “지주교 석방”과 “민주헌정회복”등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로 대신학교 정문을 향하여 내려갔으나 출동된 기동경찰대의 제지를 받고 1시간 반정도 연좌데모를 벌였다. 오후 6시 10분경 귀가할 뜻을 밝혀 경찰의 저지선이 풀리자 혜화동 로타리에서 다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페퍼 포그에 의해 약 1시간 반만에 해산했다.



□복음묵상□



# 초대받은 손님

(루가 14 : 12-24)

당신도 성년대회에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마시오. 당신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당신이 베풀어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였읍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증을 보내며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못간다는 핑계를 대었읍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발을 사서 불가불 가봐야 하겠오. 미안하오'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하고 말하였읍니다.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였읍니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큰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할것없이 모두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읍니다. 잠시후에 그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분부하신대로 다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읍니다' 하고 아뢰었읍니다. 주인은 또 다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요심이 (64)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범석규, 전화 ②3498)

- 매주 일요일 오후3시...이삭회 (성경, 성가, 건전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밤...메아리합창단
- 매주 월~목 7시...영어교실
-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 여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 - 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14(월) 성 갈리스토 1세 교황순교  
독서(갈라디아 4:22-24, 26-27, 31-5:1  
성서 p. 433)  
복음(루가 11:29-32 성서 P. 160)
- 15(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동정기녀  
독서(로마 8:22-27 성서 p. 352)  
복음(요한 15:1-8 성서 P. 245)
- 16(수) 성녀 헤드빅 수절 수녀, 성녀 마리아  
알라파 동정: 17일  
독서(갈라디아 5:18-25 성서 P. 435)

- 복음(루가 11:42-46 성서 P. 161)
- 17(목) 성이냐시오 주교 순교 기념(2월 9일)  
독서(필립비 3:17-4:1 성서 P. 453)  
복음(요한 12:24-26 성서 P. 238)
- 18(금)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독서(디모테오 후서 4:9-17a 성서 p. 489)  
복음(루가 10:1-9 성서 P. 154)
- 19(토) 성 요한, 이사악 등 순교, 십자가의  
성 바오로: 6, 28  
독서(에페소 1:15-23 성서 P. 438)  
복음(루가 12:8-12 성서 P. 162)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프랑스 제과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②5011 찰집 ②5013  
김원준(야코버)

\* 교향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소천식,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  
...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용택(모이세)

연락처 : 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 4 지구 6개 분당 소식



- 4지구 사도분과 위원회 (전주 시내 사도회장 회의 10월 16일<수> 오후 8시, 중앙성당 사제관에서)
- 수재 의연금 169,966원과 의류 1,334점 접수하여 광주 대교구에 전달
  - ①접수된 가운데 1차로 의연금 12만원과 의류 1,221점을 광주 대교구에 전달했습니다.
  - ②아직 접수 안한 분당은 20일까지 교구청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접수내역-복자성당(18,000원, 의류 416점) 가톨릭 여학관(17,440원, 의류 40점), 금산성당(14,700원, 의류 120점), 무주성당(11,085원, 의류 90점) 합일성당(10,620원, 의류 1몽치), 저학동성당(1만원) 남원성당(9,115원), 문물동 성당(8,900원), 창인동 성당(7,050원), 중동 성당(6,800원), 신태인, 전동성당(각 6천원), 칠명동 성당(5,740원), 화산 성당(5,556원), 황등, 정음, 주현동, 중앙성당(각 5천원) 부안(4,845원), 덕진 성당(3,615원, 의류 160점), 대야(3천원), 노송동(1,500원, 의류 395점), 고산성당(의류 113점)
- 제27차 국제 신용협동 조합의 날 기념행사(10. 17<목> 오후 7시)
  - 전주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가요경연대회가 베풀어 지는데 이날 행사는 다음과 같다.
  - ①단체 출연(조합별) 10명 이상 : 지정곡=시험의 노래 자유곡=대중가요 ②개인 : 대중가요
- 전주지구 6개분당 중·고등 학생 단합 체육대회(다음주일 해성 학교에서)
  - ①자격 : 신자및 예비신자 학생, ②종목 : 축구, 농구, 배구, 넷치볼, 800mR
- 전주지구 주일학교 아동 성가 경연대회(10월 27일, 중앙성당에서)
- 순회교육(오늘 오전 9시부터, 상관 천주교회에서)
  - 장사 : 범석규신부, 정주복, 한상갑씨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희  
사도 회장 이복석

- 푸리아 윌레회 오늘 오후 2시
- 성모회 윌레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 학생회 체육대회 10월 20일 해성고 운동장
- 전교주일 다음 주일
  - 특별 헌금 및 전교회 입회자 접수(회비 연 200원 이상)
- 가정 방문 14.15일 : 진북 2구 16일 : 배평 1가 1구(성당) 17일 : 서노 1구 18일 : 태평 1가 2구(성당)
- 반장 임명 : 중노 2반 이금실 수고해 주십시오.
- 신용조합 사무실 이전 구 바오로서원으로
  - 배정의 지도와 협조 요망
- 교무금 신입서 배우 구역장님들은 찾아가십시오
- 반상회 개최 신고 구역장님들은 오늘중에 일시, 장소 신고 바람
- 성년대회 참가 경비 명세
  - 수입금 : 154,800원(87명분) 지출금 : 149,430원(사무실앞에 제시함) 잔액 : 5,370원
  - 지난 주일금 42,096원
  - 군인주일 특별헌금 7,00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교무금 신입은 10월 내로(30% 인상 신입바람)
- 성우회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신용조합 윌레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 성년 대회의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 드림
- 사도회 확대회
  - 모든 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21일 저녁 7시 30분 부터(개별 통지 하겠음)
  - 지난주 성미 1말 7되 누계 311말 8되
  - 지난주 봉헌금 14,470원
  - 군인주일 봉헌금 5,551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예비자 영세 및 유아 세례 10월 27일 오후 2시)
  - 예비자는 밤 8시 교리에 참석하시고 유아 세례는 다음주일까지 사무장에게 서류제출바람
- 중·고 학생 체육대회 다음주일 학생 전원 참석과 부모님들의 협조 바람
- 75년도 교무금(봉헌금) 신입 받음
- 다음주는 전교주일 많은 협조바람
- 미사 변경(월요일부터) 아침미사 6시 30분
- 상관 공소 순회교육 이번주 9시 미사부터
  - ※ 신랑 이준(안드레아)군 최 정근 양 결혼 축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405원
  - 군인 주일금 5,0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송재진

- 사도회 회장단 개편
  - 사도회장 이요섭(현재)
  - 부회장 이엘리사벳(길용)
- 자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신용조합 윌레회 14일(월) 오후 8시 20분
- 글라라 형제회 10월 21(월)로 변경함(연합회 순시가 있으니 전원 참석 요망)

☆ 축 ☆

대건 신용조합 개축 (10월 13일)

◇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유 테레사(기남)·동원산동 구역장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음

- 지난 주일 봉헌금 41,480원
- 군인 주일 특별헌금 15,0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 신용조합 윌레회 오늘 10시 미사후
  - 임원및 조합원 전원 참석바람
- 부녀회 윌레회 다음주일
- 성년도 예산안 총 4,005,300원
  - 교무금 30% 인상 주일금 40% 인상(매주 22,000원) 교형자매의 뜻은 하느님의 뜻이되도록 적극협조바람
- 전국 성년 행사의 교형자매의 많은참석에 감사드림
- 9월말 현재 교무금 미납 632,800원
  - 숙히 완납합니다.
-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 중노 2가(무명) 5만원 분당 교리교사 일동 3,390원
  - 4지구 교리교사 일동3,200원 서학동 이누시아 1,000원
  - 전동 이베로니카 3,000원 전동 최테레사 500원
  - 중노 2가 추덕순 2,000원 이후동 함영철 1,000원
  - 중노 1가 이 유리안나 500원
  - ◎ 지난주 신축 헌금 64,590원 누계 1,659,412원
  - ◎ 복자성당 박 마리아 성미 1말
  - 지난주 신축성미 2말 5되 누계 221말 5되
  - 지난주일 봉헌금 18,93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중환

- 각 단체 회장 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
  - 분당내 신심단체 및 액션 단체 회장님의 빠짐없는 참석 요망.
- 74년도 분당운영 재정 결산 및 75년도 분당운영 예산 보고 : 교우들은 분당의 일을 각자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지난해의 결과 및 오는 해의 계획을 주지하시기 바람
- 전국 성년대회의 적극 참여에 감사드림
  - 보고는 게시관에 게시 되었음
  - 지난주일 헌금 10,505원, 감사합니다.

#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자

김 재 덕 주교

(천주교 전주 교구장)



존경하는 교황대사를 비롯한 제위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친애하는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전국 성년대회를 맞이하여, 앞서 반포된 교황 바오로 6세의 “성년 선포 특별교서”와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 주교단 사목 교서”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사회문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성년 선포 특별교서”에서 하느님께 향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과 화해**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호소를 오늘날, 전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보다도 일차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쇄신과 화해**가 없이는, 인류에게 자유, 정의, 평화가 이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교황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이와 같은 소망이 달성되기 위한 **쇄신과 화해**의 길로써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대내적인 축구로서 교회내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축구로서 범(汎)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교황께서는 교회 안의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의 사회문제 특히 **오늘날 심히 침해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실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본시 우리 교회는 결코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 하거나 등한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앞장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가까운 실례로써 지난 세기말부터 금세기에 이르기 까지 인류가 과학문명의 급진적 발전을 이룩한 반면 정신문명이 이에 따르지 못해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더욱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적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 유명한 레오 13세의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비오 11세의 “과드라제시모 안노(Quadragesimo Anno), 최근에 와서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 바오로 6세의 “제민족들의 발전” 등 역대 교황들의 사회회칙들은 인류에게 실로 불멸의 사회정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도 특히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안에는 많은 이들이 사회문제와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음선포의 사명**중에는 하느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기본권과, 인간공동체에 베푸시는 **공동선을 수호할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결코 순수종교적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에 관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

제등, 모든 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결코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비겁한 나머지, 단지 개인주의적 윤리관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의 문제, 그 중에서도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 또는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음으로 고통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현대 사목헌장 30항) 무관심은 확실히 사랑이 없는 증거이며, 사랑이 없는 곳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적으로 성년행사를 성대하게 지내고, 개인수제를 잘 한다 할지라도 정작 이웃과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서는 성년이 바라는 참된 새신과 화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순간부터도 크리스찬 정신을 심분 발휘하여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황께서는 범세계를 향하여 **금력과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이 세상에 건설해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일찌기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한 사회의 공동선은 그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존중되고 수호되는 데 비로서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억압적인 정치세력이 난무하고 있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인간의 자유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태는 공산주의와 같은 독재체제하에서는 물론이요 소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진영에서도 이런 일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일대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히 불행한 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와같은 현실에 놓여있음은 실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서 근 30년간의 이 나라의 정치 및 사회정세를 잠깐 돌이켜봄도 우리의 당면과제인 새신과 화해를 위한 사회의식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우리는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 자유대한민국의 감격을 안고 민주진영의 세계대열에 들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풀은 희망과는 달리, 또다시 우리는 **자유당 독재정권**으로 진통을 겪는 동안 6.25와 같은 비극을 치루게 됐고, 드디어는 **4.19학생의 거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비극은 후진국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군사 구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의 탄생**으로부터 비롯했습니다. 제3공화국은 혁명당시 미숙한 민주헌정에서 오는 다소간의 일시적 혼란을 바로잡는 데는 공헌한 바 없지 않았으나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곧 군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점차 의혹과 실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정권유지 장장 9년이 지난뒤 이제는 **“대통령 3선제”라는 개헌을 자행하여 억지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급격히 고조되었고 한편, 이 땅에는 군출신 집권자들을 중심으로 **신흥 귀족계급이** 형성되어 부정부패와 심한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71년 9월에는 전국대학가에서 **부정부패와 독재에 항거하는 데모**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재빠르게 소위 위수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학원내에 탱크와 공수부대를 침입시켜 마치 학생들과 전쟁이라도 벌일듯이 수많은 학생들을 체포 감금했던 것입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드디어 1972년 10월 17일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이 선포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의민주제도의 표본인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따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피상한 어용기구가 설치되어 대통령을 뽑는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그것도 "중임의 회수에는 明確한 제한이 없어 일인 영구집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일종의 총통제 국가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국민들은 전전긍긍하며 지내오던 중 뜻있는 인사들로부터 민주회복의 바람이 차차 일기 시작, 금년초 부터는 "개헌 청원운동"으로 대중속에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1월8일을 기점으로,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령"을 1호에서 4호까지 차례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 나라에는 민주회복을 위하여 일하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억울하게 투옥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이러한 우리의 얼룩진 민족사는 결코 자랑할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면 혹 민족의 수난사라해서 내일의 발돋움을 위해 추억의 역사가 될지 모르나 자유대한의 백주(白晝)하에서 이렇게 일인 장기집권, 혹 영구집권을 위해 온 겨레가 제물이 되어 자유부재의 희생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룩해 놓은 약간의 경제성장으로서는 이 역사의 오점을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종교인으로서 이 나라 권력과 금력을 가진 위정자들에게 다음 몇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우리 배달민족은 진정 선량한 국민이다. 너무나도 잘 견디어 내리만큼 인내력이 강한 국민이며 체념하기 쉬우리만큼 너무도 양순한 국민이다. 이렇게 착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하루빨리 주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사심없는 봉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삼권을 분립시켜 민주헌정의 진정한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둘째, 남은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지학순주교, 목사, 변호사, 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라

셋째, 국가의 초 긴급상태를 즉각 완화하고 다시는 걸핏하면 계엄령이다, 위수령이다, 비상사태다, 긴급조치다 하는 비상대권을 할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넷째, 이 나라의 반공정책을 시급히 발복색원책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독재는 독재를 낳고, 자유는 자유를 낳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독재 공산주의가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우선 이 나라에서 독재의 요소를 말끔히 뿌리뽑아야 하며 금력의 남용에서 오는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총화를 원하시는 대통령에게 한가지 진언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치사에서 "큰 자유위해 작은 자유를 희생하는 슬기"를 당부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잔칫날 잘 먹자고 3일을 굶었더니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지않습니까? 이 나라에는 현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원의 자유마저 없으니 이를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최소한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는 국민에게 큰 자유라는 것은 사치스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보다 더 큰 자유란 도대체 무슨 자유란 말입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민에게 따뜻한 사랑과 자유를 되돌려 주심으로써 그들로부터 억지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내의 각급 지도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몇가지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과연 우리 주교들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은 그동안 이 나라의 번영과 사회정의를 위해 얼마나 힘써왔으며 동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해 왔는지 깊이 반성해

야 하겠습니까. 한가지 당면한 실례로 지주교님께서 평소에 사회정의를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일해오시던 중 때로는 방법에 있어 좀 지나치고 마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영어의 몸이된 이 마당에까지 냉혹하게도 책임을 모두 본인에게만 돌리며, 그분을 우선 구출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역사회를 위하여도 필요하다면 성당마저 개방해야 할 차제에 “신성한 성당에서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시위니 데모니 하는 구실을 부쳐 구속된 지주교를 위한 기도회마저 가지기를 꺼려한 우리들이라면 성전 존경심이나, 당국의 비위를 거스릴까 하는 조심성보다는 훨씬 앞서야 할 형제애가 메마른 소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가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주교님께서 일차 행방불명에서 풀려 재차 연금되실 때까지 일시 머물 수 있는 장소제공마저 후환이 두려워 꺼려했다는 사실은 과연 “여우도 제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랄까, 너무나도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도 권위의식에 취해 입으로는 곧잘 인간존엄성을 부르짖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예사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귀족행세를 일삼지 않는지 반성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가난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성직자 수도자들이 과다한 신경을 물질에 쏟고 있어 성직자의 개인 소유재산이 몇 천만대이상 심하면 억대라는 소문은 웬말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돈 낚는 어부로 불리었던 말입니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신도의 공의회”라고도 불리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난지 이미 10년이 넘는 오늘에도 여러분은 아직도 만사를 성직자에게만 의존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우리 평신자중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정치인, 학자, 경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의장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이밖에 각계각층에 유력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이 꼴을 그대로만 보고 있을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린이도 아니며 그저 피동적으로 지침이나 명령만을 기다릴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회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성직자 수도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 알고 있고 문제해결에도 더 나은 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좀더 자발적인 창의와 계획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로잡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제 똑똑히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끝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갈라지지 말고 서로 일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같이하여 굳게 단합하십시오”(고린토전서 1 : 10)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일치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능히 만족스럽게 성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현실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박하고도 절실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수많은 우리동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또 그들에게 인간 존중성을 회복 시켜 주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납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이 나라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백성이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힘껏 노력합시다.

이것만이 진정 이 나라의 번영과 공산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애국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같이 이. 미사에서 그리고 이 성사동안에 뜨거운 기도를 계속합시다.